

##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활용한 블렌디드 환경에서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김정현 (인하공업전문대학교)

Received: 27 August 2023  
Revised: 11 October 2023  
Accepted: 20 October 2023

**Kim, Junghyun. (2023). Effects of English self-efficacy and self-determination on English achievement in a blended environment using online video lectures. *Modern English Education*, 24, 223-237.**

### Keywords

Blended learning, English self-efficacy, self-determination, online video lectures  
블렌디드 러닝,  
영어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온라인 동영상강의

### Junghyun Kim

Professor, Department of Foreign Languages & Liberal Arts  
Inha Technical College  
[selina@inhac.ac.kr](mailto:selina@inhac.ac.kr)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and English self-efficacy on English achievement in a blended class environment. While conducting classroom lessons during the semester, students were encouraged to voluntarily utilize online video lectures according to their individual needs. Survey results of 158 respondents showed that 48.1% of students used the video lectures for exam preparation, review, preparation, or understanding classroom classes. Second, 74% of students said that using video lectures as a supplement was helpful for improving their achievement. Third, students used video lectures according to their English proficiency, class understanding level, and learning style. Fourth, English self-efficacy and English achievemen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Although self-determination also showed a positive (+) correlation with English achievemen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lf-determinat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nglish self-efficacy. Fifth, English self-efficacy and English achievement had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Although self-determination had a negative (-) effect with English achievement,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epth interviews with four students revealed that English self-efficacy was analyzed differently depending on participants' English proficiency. Of sub-variables of English self-efficacy, only identified regulation was analyzed.

## 서론

2020년도부터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전염병의 영향으로 온라인수업은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에게 이전보다 익숙한 학습방법이 되었다. 이후 수많은 온라인수업 관련 연구가 나왔으며 대부분은 온라인수업에 대한 수업만족도를 조사하거나 대면수업과 온라인 수업을 비교한 것이었다. 이중 일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수업은 계속해서 필요하며, 교실수업을 하면서도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계속해서 같이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대면수업만 옹호하는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Cho, 2021; J. Kim, 2021; B.-K. Lee, 2021). 본 연구는 이러한 온라인 동영상 강의의 계속된 사용을 강조하는 것을 반영하여, 2023년도 1학기에 인천 A 전문대학의 영어수업에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실수업 시행 전·후에 예습과 복습을 위해 교실수업과 동일한 내용의

LMS에 탑재한 동영상강의를 자발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시간·비용·노력이 덜 들면서 교실 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약한 블렌디드 러닝(weak blended learning)’을 적용한 것이다. 이는 수업 전체를 변형 수업 전체를 변형 또는 재구성하기 때문에 시간·비용·노력이 많이 소모되는 ‘강한 블렌디드 러닝(strong blended learning)’과는 대조적인 수업 형태이다. 본 연구에서 약한 블렌디드 러닝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3년도 A 대학의 전면적 교실수업(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는 학사 규정에 위배되지 않은 수업방법이 교실수업을 주로하고 동영상 강의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둘째, 교수자 혼자 비교적 짧은 시간, 노력과 비용으로 수업을 설계와 준비를 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지난 3년간 익숙해지는 동영상강의를 제작해서 사용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 동기 요인 중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이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관계와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특별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에 대해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이나 기대이고, ‘영어자기효능감’은 이것을 과목-특수적 차원에서 영어학습에서 한정하여 사용된 개념이다(B. Kim, 2016).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은 Deci와 Ryan(1985)에 의해서 제시된 것으로 학습동기를 자율성(autonomy)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개념으로 내재화된 행동을 의미하며 학습에 대한 선택권, 즉 공부하는 이유가 학습자 본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을 본 연구의 주된 학습동기요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학습동기 요인은 서로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학업적 수행 및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J. Y. Park, 2017). 둘째,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은 학습몰입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진다. 학습몰입은 학습의 과정에 대한 만족감과 호기심, 성취감, 자긍심을 올려주기 때문에 학습 동기요인과 더불어 연구되고 있다(K-S. Park & I. Oh, 2016). 마지막으로,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선행연구는 있었으나, 본 연구처럼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블렌디드 환경에서 이 둘과 영어 성취도와의 관계를 양적인 방법과 질적인 방법을 혼합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C.-J. Kim, 2013; J. Kim 2022a; J. Y. Park, 2017).

본 연구는 다음 두 가지 최종적 목적을 가진다. 첫째,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 환경의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블렌디드 수업 환경에서 영어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동기, 영어 성취도 각 변인간의 상관 관계와 영향을 혼합적 방법(mixed method)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블렌디드 러닝’은 말 그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육 시스템을 연계하여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비율로 혼합해 사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일컫는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대결 구도를 넘어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서로 균형을 잡는 교육 방법이다.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의 win-win을 구현하는 전략적 제휴이다(Thorne, 2003). Stein과 Graham(2013)에 따르면 블렌디드 러닝은 효과적으로 유연한 학습을 위해 면대면(오프라인)수업과 온라인수업을 결합하는 과정이며, 교육대상에게 교육과정에서 미디어와 테크놀로지를 결합해서 사용하는 의미이다. Bersin(2004)에 따르면 통합(Blended)이라는 용어는 기존 전통적 교사 중심의 훈련에 전자적(electronic) 도구가 보조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블렌디드 러닝의 종류에는 ‘약한 블렌디드 러닝(weak blended learning)’과 ‘강한 블렌디드 러닝(strong blended learning)’이 있다(Graham, 2006). 약한 블렌디드 러닝은 교수자가 교수법의 큰 변환 없이 온라인학습 또는 오프라인학습 중에서 한쪽이 우세한 가운데 추가적이거나 보충적인 활동을 하여 한쪽을 강화하는 것이다. 강한 블렌디드 러닝은 교수법 전체를 변형 또는 재구성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 서로 최대한의 노출과 상호작용을 제공하여 양쪽 모두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실(오프라인)수업을 우세하게 사용하면서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보조적으로 학습에 활용하는 약한 블렌디드 러닝을 사용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의 일반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반복 학습과 개별 학습하기 좋다(J.-H. Han & H. Kang, 2018). 둘째, 사전에 동영상강의를 미리 시청하고 학습자료를 검토하기 때문에

교실수업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준다(J.-H. Han & H. Kang, 2018). 셋째, 상대적으로 수준이 낮은 학습자가 복습하기 좋기에 다양한 수준 학습자들의 지식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사가 LMS에 올려놓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Ha, 2022; Lee et al., 2010). 마지막으로, 개인적 사정으로 교실수업에 참여할 수 없는 학생들이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영상강의를 활용할 수 있다(Lee, Lee, & Yoon, 2010).

## 영어자기효능감(English self-efficacy)

‘자기효능감’은 특별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행동에 대해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 개인의 신념이나 기대로 정의된다(Bandura, 1977; J. Y. Park, 2017, M.-J. Lee, 2004에서 재인용).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수행 및 성취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A. Kim & I.-Y. Park, 2001; M.-J. Lee, 2004).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 자기효능감은 대학생들이 전 생에게 걸쳐서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로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Jung, 2011). 자기효능감의 근원은 성취 경험(performance accomplishment)과 간접경험(vicarious experience), 칭찬과 격려 등을 통한 언어적 설득(verbal persuasion), 그리고 정서적 흥분(emotional arousal)이 있다. 이 자기효능감의 근원들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다(Bandura, 1986, Y.-B. Oh & C.-D. Lee, 2012; M.-J. Lee, 2004, E. D. Joe, 2016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과목 특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영어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과제 선택, 노력, 지속성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며, 과목-특수적 차원에서 영어학습에 한정하여 설명할 때는 ‘영어자기효능감’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B. Kim, 2016).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이 개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특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본인의 능력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이라고 하면 영어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영어 관련 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기 능력에 관한 판단이다(A. Kim, 2007). 영어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어려움과 실패에 부딪히더라도 높은 동기와 내적 흥미를 유지할 수 있으며, 외국어 학습에 대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다(Bandura, 1986).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러 동기 요인 중 자기효능감을 선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능동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며 구체적인 상황의 자신감을 의미한다(J. Y. Park, 2017). 둘째,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과제 선택, 노력, 지속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Bandura, 1977). 마지막으로, 영어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전 생에게 걸쳐서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자로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Jung, 2011).

여러 연구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또는 영어자기효능감이 학습자들의 학습 동기 및 불안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학업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치며, 성공적인 외국어 학습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다(Chen, 2020; Jung, 2011 J. Kim, 2021; S. A. Kim, 2014; Y. J. Kim, 2017; M.-J. Lee, 2004; Oh, 2012; J. Y. Park, 2017). Jung(2011)은 대학생들의 영어학습에 대한 전략 사용과 자기효능감을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반복 측정하여 자기효능감이 토익 성적에 변화에 미친다는 것을 종단적으로 규명하였다. Oh(2012)는 대학생의 자기효능감 변화와 자기효능감과 토익 성취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토익수업 후에 학습자의 자기효능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토익 듣기 점수가 높은 학습자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en(2020)은 대만 대학생 216명의 설문 조사를 통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이 영어 성적도 높은 것을 입증하였다. J. Kim(2021)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온라인수업만 시행했던 2021년도 1학기의 대학생의 영어수업의 온라인수업 만족도와 영어자기효능감이 성취도에 정(+)적인 관계와 영향을 보여준 것을 입증하였다.

## 자기결정성(self-determination)

‘자기결정성’은 동기를 자율성(autonomy)의 정도에 따라 분류한 개념이다. 자기결정성이란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의미하며 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고 공부하는 이유 또한 본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Deci와 Ryan(1985)은 기존의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재적 동기(extrinsic motivation)를 대립적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자기결정의 정도에 따라 동기가 세분된다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제시하였다. 자기결정성이란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의미하며 학습에 대한 선택권이 본인에게 있고 공부하는 이유 또한 본인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yan & Deci, 2000).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동기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의 핵심이다(Deci & Ryan, 2000;

A. Kim, 2002; Ryan & Deci, 2000, C.-M. Park, 2009에서 재인용). Deci와 Ryan(1985, 2000)은 학습 동기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분류하였다(J. Kim, 2022b; J. Y. Park, 2017, E. M. Joe & J. Y. Lee, 2010에서 재인용).

무조절(non-regulation): 자기결정성이 전혀 없는 상태로 행동의 목적이 부족해서 학습동기가 내면화되어 있지 않아 학습자가 행동에 대한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이다.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처벌을 피하여 행동하거나 외부에서 부과된 보상을 받기 위해 행동하는 경우이다. 외적 조절은 통제적이고 수행 수준이 낮으며, 보상이 철회되면 사라진다. 부모나 선생님이 공부하라고 시키거나 칭찬받기 위해 공부하는 경우이다.

내사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자존감에 기반하여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다. 여전히 통제적이지만, 행동의 원인은 죄책감, 회피, 불안, 자기가치 증진 등의 압력으로 행동에 기인한다. ‘영어를 못하면 소외감을 느끼므로’ 또는 ‘남들에게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라는 이유로 학습하는 경우이다.

확인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개인이 행동을 가치 있다고 판단하거나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선택하여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며, 행동 자체에 즐거움은 포함되지 않는다. 확인된 조절 유형은 부여된 목표나 개인적인 중요성에 의해 행동을 조절하는 것이 특징이다. ‘영어 공부를 하면 실생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므로’와 같은 이유로 공부하는 경우이다.

자기조절(self-regulation): 행위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나 학습자의 고유한 관심으로 행동하는 내적 동기에 해당한다. 내적 보상을 위한 것으로 ‘새로운 영어표현을 배우는 것이 재미있어서’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기결정성은 학습자의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거나 영향을 주는 동기 요인으로 입증되었다(E. M. Jo & J. Y. Lee, 2010; H. J. Ju, 2011; Kim, Kim, & Hong, 2006; J. Kim, 2022b; S. Kim, 2018; J. Lee, 2011; J. Y. Park, 2017). Kim, Kim과 Hong(2006)은 3,449명 중학교 2학년 남녀의 자기결정성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자기결정성은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학업 성취도에 매개 변인으로 역할을 하였으며, 남녀 두 집단 모두에서 높은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다. 내재 동기는 학업 성취와 긍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지며, 자기결정성은 내재 동기를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된다고 입증하였다. Jo와 Lee(2010)는 우리나라 중학생의 학업상황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기조절 전략이 자기결정성동기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자기결정성동기가 같은 유형내에서 학업성취 수준에 따라 동기조절 전략의 사용이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자기결정성이 높은 동기유형을 가진 학생일수록 스스로 공부하는 이유를 알고 있거나, 흥미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으며, 공부를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고, 공부에 대한 가치를 알고 있으며, 시험을 잘 치기 위해 노력하였다. J. Lee(2011)는 고등학생의 자기결정성이 영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자기결정성을 환경적 압박,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 내재 동기의 5가지 세부 범주로 나누어 영어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영어 학업 성취도는 이러한 세부 범주들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S. Kim(2018)은 대안학교와 공립학교 학생들의 자기결정성을 분석하였다. 학교 종류에 따른 동기 수준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학생들의 영어 성취 수준에 따라서 무동기,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J. Y. Park(2017)은 자기결정성과 학업 성취도 간의 상관 관계는 다소 낮아서 성취도와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기보다는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 영어자기효능감과 서로 밀접한 관계를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기결정성은 다른 요인들을 매개로 했을 때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J. Kim(2022b)은 온라인수업과 교실수업이 혼합되어 실시된 2022년도 1학기 대학생들의 영어학습주도성과 자기결정성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자기결정성과 영어 성취도의 관계와 영향이 부(-)적인 관계와 영향을 보였다.

관련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자기결정성은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기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상당 수의 연구들이 자기결정성이 독립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기 보다는 다른 동기요인이나 전략 등과 같이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 성취도와 자기결정성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부(-)적인 관계를 보인 일부 결과들을 보면, 자기결정성 관련 연구 수행과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연구 방법

### 연구 대상과 연구 배경

본 연구의 참여자는 2023년도 1학기에 ‘영문의 이해 초급’ 수업을 듣는 항공 운항과 1학년과 재수강을 하였던 일부

2학년 학생이다. 영문의 이해 초급은 TOEIC의 독해 능력(reading comprehension)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업으로 영어 문법과 어휘, 실전 문제 풀이를 수업에서 가르치는 수업이다. 이 수업은 다른 영어과목(예, 영어회화, 영어청취)와 비교했을 때 온라인 동영상강의와 교실수업의 내용일치도가 높은 수업이었다. 모든 교실수업과 온라인 강의 활용이 끝난 15주차에 학생들에게 핸드폰의 URL 링크를 보내서 구글 설문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업을 수강하는 전체 학생이 232명이었으나, 자발적으로 설문에 참여한 158명의 응답만 분석하였다. 설문 참여 학생 중 자발적으로 동의한 상위 2명과 하위 2명에게 전화로 반구조화된 심층면담(semi-structured in-depth interview)을 실시하였다. Table 1은 면담 참여자의 온라인 교육경험과 특성을 간략하게 보여준다.

**TABLE 1**  
*Participants of the In-depth-interviews*

Name	English Achievement. (Midterm + Final Exam, 60 Points in Total)	Use of Online Lectures	Characteristic
D	22.5 (12.5 + 10)	She used most enthusiastically the video lectures among interviewees. She used it more actively while preparing for the final exam.	She had a fear of studying English. She thought her English grades were low.
K	30.5 (18.5 + 12)	She used the video lecture the least among the interviewees.	She thought her English was medium level. She started to study English as she became a freshman.
B	49.5 (23 + 26.5)	She partially used video lectures where she did not understand.	She answered that TOEIC learning was necessary for getting a good job and that English was necessary for communication with foreigners.
P	52.5 (24 + 28.5)	She answered that she used video lectures more when studying for the final exam, and that taking video lectures was helpful to improve her grades.	She said that school classes somewhat helped her improve her English ability. She had a high sense of goal regarding studying English.

## 연구 절차

### 학습 과정과 실험 과정

A대학은 2023년도 1학기에 일부 온라인 교양 과목을 제외하고는 전면적 대면(교실)수업을 방침으로 정하였다. 영문의 이해 초급도 교실수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교수자는 LMS에 교실수업과 같은 내용의 동영상강의를 미리 탑재하여 학생들의 개별적 필요에 따라 자발적으로 교실수업 시행 전·후에 연습과 복습을 위해 활용하였다.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에 온라인강의는 출석 인정을 위해 2시간(100분) 수업 당 50분의 강의제작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이번에는 시간제약을 고려하지 않고 강의 계획서대로 제작하였다. 온라인 동영상강의는 코로나 감염 등의 법정 전염병에 걸렸거나 학교 외부행사로 수업참여가 힘든 학생들에게 해당 주차의 과제도 온라인으로 제출하게 하여 개별적인 수업 결손을 보충하였다. 또한 법정 공휴일로 교실수업의 참여가 힘든 일부 학급의 학생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온라인 과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교실수업 중이나 끝날 때 수업 시간에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개별적인 동영상강의 학습을 학생들에게 권유하였다.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모르는 부분을 찾아서 학습하고, 시간 편의를 위해 정상 속도보다는 빠른 속도로 학습해도 괜찮다고 설명하였다. 수업 내용 전체가 이해되지 않는 학생은 교실수업 전에 동영상강의를 통한 연습을 권하였다. 온라인강의에서는 계획한 학습내용을 다 진행했지만, 교실수업에서는 수업 운영 시간 조절을 위해 일부 내용을 생략하기도 했다. Table 2는 2023년도 1학기 수업 과정과 실험 과정을 보여준다. 온라인 동영상강의는 대면수업이 있는 2~7주차, 그리고 9~14주차에 교실수업과 같이 진행되었다.

**TABLE 2**  
*The Experimental Procedure*

Week 1	Week 2~Week 7	Week 8	Week 9~Week 14	Week 15	After all the classes
Class Introduction	Classroom Lesson	Midterm Exam	Classroom Lesson	Final Exam	In-depth Interviews (2 students in the high level/ 2 students in the low level)
	Loading video lectures into LMS		Loading video lectures into LMS	Conducting a student survey	

### 연구 도구 및 분석

설문문항은 학생 기초 조사, 블렌디드 수업환경, 영어자기효능감, 그리고 자기결정성에 관련된 것으로 구성되었다. 블렌디드 관련 설문문항은 본 연구의 블렌디드 환경에 맞추어 연구자가 직접 제작하였고, 영어자기효능감은 J. Kim(2021)에서 사용된 설문문항을, 그리고 자기결정성에 관한 설문문항은 J. Kim(2022b)에서 사용된 것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영어 성취도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을 합계를 사용하였다(J. Y. Park, 2017). 구글 설문지를 통해 답변 받은 설문은 Excel로 데이터 코딩 작업을 하고 IBM SPSS v21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3는 설문문항 정보를 요약한 것이다. 전체 설문문항의 크론바크 알파 값은 .865이다. 알파 계수는 0.6~0.7이면 수용 가능한 수준이기에 설문문항 모두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TABLE 3**  
*Survey Questions Construction*

Survey Areas	Contents	Item Number	Total	Cronbach Alpha
Student Basic Information	Overseas experience and duration		2	
	The degree of helpfulness of English classes taken at school			
Utilization of Blended Learning	Level of understanding of course content	1		
	Improvement in English achievement through classes	2, 2-1, 2-2	3	
	The utilization and effectiveness of video lectures	3, 3-1		
English Self-Efficacy (ES)		1, 2, 3, 4, 5, 6, 7	7	.926
Self-Determination (SD)	Non-Regulation (NR)	10, 14, 16, 18	4	.805
	External Regulation (ER)	2, 4, 7, 8, 13	5	.768
	Introjected Regulation (INTR)	1, 5, 12, 17, 19	5	.778
	Identified Regulation (IDR)	3, 6, 9, 11, 15	5	.679
	Total		19	.823

Note. English self-efficacy-영어자기효능감, self-determination-자기결정성, non-regulation-무조절, external regulation-외적 조절, introjected regulation-내사된 조절, identified regulation-확인된 조절

본 연구의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동영상강의 활용에 관한 의견을 물어본 개방형 주관식 설문문항은 내용별로 직접 분류하였다. 블렌디드 러닝의 사용에 관한 객관식 문항은 구글에서 분석한 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둘째, 측정에 사용되는 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설문문항의 크론바크 알파 계수를 확인하였다. 셋째, 영어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학업 성취도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 통계 분석을 시행하였다. 산출된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주요 하위요인들의 정규성(평균, 표준편차, 첨도, 왜도)을 검증하였다. 넷째, 영어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그리고 영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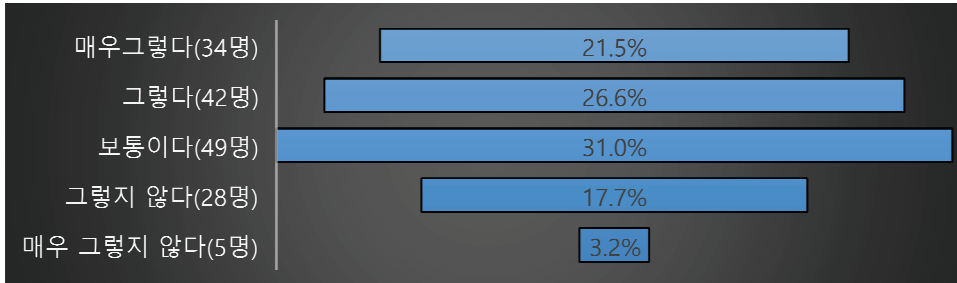
성취도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와 그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영어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그리고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데이터는 전사 이후 분석을 위해 Strauss와 Corbin(1994)의 근거이론(Grounded theory)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면담 자료 이외 질적 자료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를 위해 학생들의 개방형 주관식 설문문항의 답변과 과제로 제출한 자소서 등도 같이 분석하였다. 전사된 면담 데이터를 주의 깊게 읽고 중요한 개념이나 근거로 밀줄로 표시한 후에 중요한 내용이나 같은 내용으로 개념적인 틀에 맞추어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결과 및 논의

### 블렌디드 수업 환경에서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 온라인 동영상강의 활용

Figure1은 ‘2023년도 1학기에 교실수업을 들으면서 LMS에 탑재한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활용했는가’를 묻는 객관식 질문에 대한 학생들의 답변을 보여준 것이다. 158명의 응답자 중 48.1%(76명)이 활용했다는 긍정의 답변을 하였다. 온라인 동영상 강의 활용여부를 ‘보통이다’(실제 설문문항에는 3이라는 숫자로만 기록)이라고 애매하게 답변한 학생이 31%(49명)이고,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20.9%(32명)이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학생도 상당수 있는 이유는 본 연구에서는 약한 블렌디드 러닝으로 온라인 강의에 참여하는 것이 출석에 반영되지 않고 자발적인 필요에 따라 활용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강의 참여가 강제성이 없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수(158명중 76명)가 온라인 강의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1**

*Degree of Utilization of Online Lectures*

면담 참여자도 면담 내용과 일치하게 각기 다른 온라인 접속 시간과 패턴을 보여주었다. 참여자 D는 모든 주차의 온라인 강의를 전체적으로 가장 성실하게 참여했으며, 참여자 K의 경우에는 2~5주차까지만 전체 또는 일부강의에 접속하였고 이후에는 접속기록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자 B와 P는 전체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기보다는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활용하여 수업을 들었으며 이 또한 면담내용과 일치한다.

Table 4는 학생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용도로 어떻게 온라인 강의를 활용했는지 알아보기위한 개방형 주관식 설문문항을 분석한 것이다(102명 응답, 경우에 따라 중복으로 분석). 중간·기말고사와 같은 학교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한다는 학생들이 35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교실수업을 후에 복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답변이 29명(28.4%)이었다. 교실수업 전에 예습으로 사용한다는 학생도 11명(10.8%)이었다. 앞의 면담 참여자 B와 P와 같이 경우 교실수업 후에 어렵거나 필요한 부분의 이해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학생이 전체의 20.65%로 21명이나 된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학생들은 본인의 영어 능력과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Utilization of Online Lectures*

Preparing for school examinations -35 students (34.3%)
Reviewing lessons after class -29 students (28.4%)
Understanding necessary parts -21students (20.6%)
Previewing lessons before class -11students (10.8%)
Studying for the TOEIC-5 students (4.9%)
Completing classroom assignments -4 students (3.9%)
Others-7 students (6.9%)
Within one hour -5 students (4.9%)
One hour-4 students (3.9%)
For more than one hour -6 students (5.9%)
Whenever time permits -1 student (1%)

다음은 개방형 주관식 설문문항의 답변은 Table 5의 구체적인 예를 보여준다.

“해설지를 보고도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 영상을 참고하여 해결할 수 있었다. 하나의 영상 다 10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으며, 수업시간 이외에도 추가적인 학습이 필요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좋았다.”(답변1)

“헛갈리거나 잘 모르는 개념을 다시 복습하기 위해 동영상강의를 시청했다. 틀린 문제를 풀이해 주셔서 내가 틀린 부분에 대해 부분적으로 강의를 활용했다.”(답변2)

“모든 강의를 활용했고, 숙제 후 틀린 문제 확인하고 해설을 알고 싶을 때 들었습니다.”(답변 3)

“주차별로 교안의 영상 강의를 올라오는데 시험기간에 먼저 교안을 풀어본 뒤 영상을 보며 답을 체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교안을 풀고 채점하며 시험공부를 했습니다.”(답변 4)

답변1과 답변2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만 들으면서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활용하였으며, 답변 3과 4는 본인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모든 주차의 강의를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면담 참여자 B도 위와 같이 모르는 문제의 해설을 위해서 평균 20~30분정도 활용했다고, 면담 참여자 P도 중간고사 부분에 활용하고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한 부분을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유용했다고 답변하였다.

본 연구에서 과반의 학생이 각자의 방법으로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활용했다고 답변했지만, 모든 설문 응답에 참여한 학생이 동영상강의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동영상강의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물었던 개방형 주관식 설문문항에 응답한 24명의 학생들을 기준으로 보면 9명(37.5%)가 ‘수업시간에 이해가 충분히 다 되어서 따로 온라인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었다’고 답변하였으며 학기 중에 학교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따로 시간을 내서 온라인 강의를 들을 수 없었다는 ‘시간부족’을 답변한 학생이 4명(16.7%)이었다. 다음은 그 구체적인 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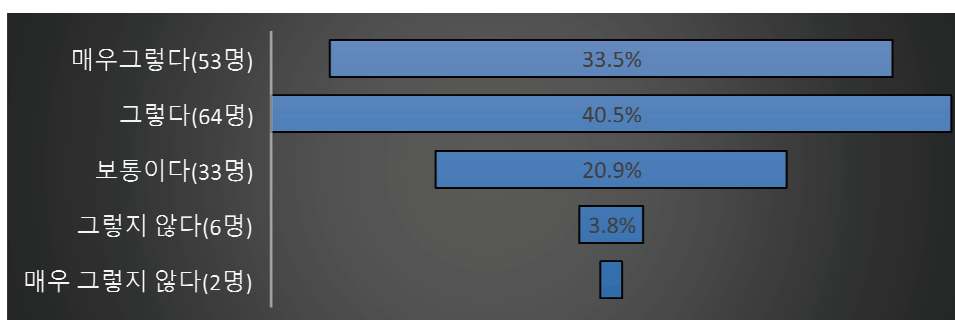
수업시간 내용과 너무 같은 내용이라 약간의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답변 5)

“교수님께서 수업시간에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셨으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따로 수업이 종료된 후, 남아서 1:1로 설명을 해주시는 등 교수님의 재미있고, 유쾌한 수업 덕분에 동영상강의를 활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영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교수님 정말 최고입니다.”(답변 6)

### 온라인 동영상강의 이용과 성적 향상

‘이번 학기 영문의 이해 초급 수업의 내용과 양은 내가 따라가기에 충분하면서 영문법 실력과 토익 독해 실력이 향상되었다’라는 객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전체 설문 응답에 답변한 158명의 학생들 중에서 질문에 115명(60.7%)이 ‘매우 그렇다’ 또는 ‘그렇다’라는 긍정의 답변을 하였다.

수강하고 있는 영어 수업의 이해 정도에 대한 긍정은 ‘동영상강의를 교실수업 외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질문에서도 같은 양상을 보였으며 그 내용을 보여준 것이 Figure 2이다. 전체 158명의 응답자 중 53명(33.5%)이 ‘매우 그렇다’에 64명(40.5%)가 ‘그렇다’에 응답하였다.



**FIGURE 2**  
*The Effectiveness of Using Video Lectures as a Supplementary Tool for Improving English Achievement*

Table 5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한 ‘보조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는 것이 성적향상에 도움이 되는 이유’에 응답한 한 100명의 개방형 주관식 설문문항의 답변을 내용별로 분석한 것이다(경우에 따라 중복분석). 어려운 부분을 복습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36명(36%)이었고, 교실수업과는 다른 설명으로 수업 시간에 이해가 어려울 때 도움이 된다는 학생이 24명(24%), 그리고 예습으로 교실 수업이 수월해지기 때문이라고 답한 학생이 3명(3%), 혼자 공부할 때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학생이 2명(2%)이었다.

**TABLE 5**  
*Specific Reasons of Using Online Lecture as Supplementary Tool to Improve English Achievement*

Repetition and review of difficult parts	36 students (36%)
Distinct from traditional classroom instruction, when struggling to comprehend the content during class.	24 students (24%)
Enhancement of comprehension, checking unfamiliar parts	5 students (5%)
Reviewing through online lectures made classroom lesson easier	3 students (3%)
Self-study	2 students (2%)
Used online lecture to study for exams	2 students (2%)
Others	9 students (9%)

다음은 Table 5의 구체적인 예이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다시 볼 수 있고 대충 지나갔던 문제들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을 수 있지만 영상을 통해 다시 학습해 성적에 도움이 되었습니다.”(답변 7)

“수업을 따라가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는 학생이나,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수업시간에 질문이 있어도, 따로 질문하는 걸 어려워하는 학생들에게 동영상강의는 성적을 향상시키는 데에 큰 기여를 할 거라 생각합니다.”(답변 8)

“까먹었던 내용도 다시 찾아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대면수업 때 진행하시는 내용과 거의 똑같아 다시 듣다 보면 수업시간에 들었던 내용 상기되어 더 기억하고 이해하기 쉬웠던 것 같습니다.”(답변 9)

답변 7과 답변 9는 온라인 동영상강의가 교실수업의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서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답변하였으며, 답변 8은 내향적인 성격으로 수업시간에 질문이 힘든 학생에게 온라인 수업이 특별히 효과적이라고 답변한 것을 알 수 있다. 면담 참여자 B, D, K도 위와 같이 수업 시간에 이해 못한 내용을 보강하거나 다시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고 면담 참여자 P도 약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문법들을 다시 공부할 수 있어서 시험 공부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다음은 면담 참여자 P의 심층면담에서 동영상강의를 복습에 어떻게 활용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네 그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가지고 문제를 새로 풀 때 이게 계속 지우고 쓰고 할 수가 없으니까 PPT랑 교환을 보면서 강의 이렇게 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특정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마지막 연습할 때”(2023. 06. 30 참여자 P)

온라인 동영상 강의 활용과 성적 향상에 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본 연구에서 교수자는 LMS에 교실수업과 더불어 동영상강의를 제작하고 LMS에 탑재하고 학생 전체 또는 개별로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본인의 학습에 사용하도록 장려하였다. 그 결과 절반 정도의 학생이 온라인강의를 실제로 활용했다고 답변하였다. 면담 참여자도 각기 온라인 동영상 활용 방법과 빈도는 다르지만 동영상강의를 활용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74%의 학생들이 동영상강의를 활용하면 교실수업과 마찬가지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은 주로 학교 시험 대비, 교실 수업의 복습과 예습을 위해 동영상강의를 사용하였다. 또한, 동영상강의 전체를 듣기보다는 교실수업을 들은 후에 이해가 어려운 부분을 선택적으로 활용한 학생이 상당히 많았다. 학생들은 각자의 영어 실력과 수업 이해 정도와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동영상강의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활용하였다. 수업시간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질문하기 힘들거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학생에게 동영상강의를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이었다.

한 가지 더 고려할 것은 과반의 학생이 온라인 강의를 활용했다고 답변했지만 설문 응답자의 일부는 동영상강의를 학습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것이다. 이들은 교실수업에서 수업내용이 잘 이해되는 상위 학습자이거나 개인적으로 동영상강의 시청을 선호하지 않는 학습자이다. 이것은 동영상강의를 보조적으로 영어학습에 활용하는 것이 모든 학습자에게 적용되어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블렌디드 수업 환경에서 영어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동기, 영어 성취도의 상관 관계와 영향

### 영어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동기, 영어 성취도의 상관 관계

Table 6은 설문에 응답자들의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 그리고 영어 성취도의 기술통계이다. 영어자기효능감은 평균 값이 3.59로 긍정적 값을 자기결정성은 2.37로 부정적인 값을 보였다. 자기결정성의 각각의 하위 요인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확인된 조절(IDR)이 3.90, 그리고 무조절(NR)이 1.16, 외적 조절(ER)이 1.89이다. 이 하위 동기요인 중 확인된 조절(IDR)만 긍정적 평균 값을 보여준다. Kline(2005)의 설문문항의 정규성을 입증하기 위한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면 무조절(NR)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설문문항은 |왜도|<3, |첨도|<10의 조건을 충족한다.

**TABLE 6**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English Self-efficacy, Self-determination, and English Achievement (N=158)*

	Mean	S. D.	Skewness	Kurtosis	
English Self-Efficacy (ES)	3.59	.86	-.367	-.21	
Self-determination (SD)	Overall Self-Determination (SD)	2.37	.44	1.21	6.16
	Non-Regulation (NR)	1.16	.43	5.45	41.87
	External Regulation (ER)	1.89	.67	1.00	1.72
	Introjected Regulation (INTR)	2.53	.83	.37	-.37
	Identified Regulation (IDR)	3.90	.60	-.80	1.03
English Achievement (Mid-term + Final)	40.39	11.28	-.15	-1.03	

*Note.* English self-efficacy-영어자기효능감, self-determination-자기결정성, non-regulation-무조절, external regulation- 외적 조절, introjected regulation-내사된 조절, identified regulation-확인된 조절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의 영어 성취도와의 Pearson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가 Table 7이다. 영어자기효능감과 영어 성취도는 정(+)적인 관계이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 $r = .486, p < 0.01$ ). 이는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하며 영어자기효능감이 학습자의 영어 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동기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J. Kim, 2021; Y. J. Kim, 2017; H. J. Oh, 2012; J. Y. Park, 2017).

**TABLE 7***The Correlation between English Self-Efficacy, Self-Determination, and English Achievement (N=158)*

	English Achievement	ES	SD	NR	ER	INTR	IDR
English Achievement	1						
English Self-Efficacy (ES)	.485**	1					
	.000						
Self-Determination (SD)	.054	.285**	1				
	.501	.000					
Non-Regulation (NR)	.055	.205**	.857**	1			
	.496	.010	.000				
External Regulation (ER)	-.107	-.030	.780**	.565**	1		
	.181	.712	.000	.000			
Introjected Regulation (INTR)	.055	.205**	.857**	.137	.565**	1	
	.496	0.10	.000	.085	.000		
Identified Regulation (IDR)	.259**	.612**	.556**	.376**	.133	.376**	1
	.001	.000	.000	.000	.096	.000	

Note. English self-efficacy-영어자기효능감, self-determination-자기결정성, non-regulation-무조절, external regulation-외적 조절, introjected regulation-내사된 조절, identified regulation-확인된 조절, \* $p < 0.05$ , \*\* $p < 0.01$

Table 7을 보면, 전체 자기결정성과 영어 성취도는 정적인 상관관계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r = 0.54, p > .05$ ). 자기결정성과 관련된 하위 요인 중 유일하게 앞의 기술통계에서 긍정의 값을 보여주었던 확인된 조절( $M = 3.90$ )만 유의한 상관 분석 값을 보여주었다( $r = .259, p < 0.01$ ). 이것은 S. Kim(2018)의 연구에서 무동기, 확인된 조절, 내적 동기가 성취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났던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확인된 조절(IDR)만 영어 성취도와 상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자기결정성이 영어 성취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는 것은 기존 연구의 자기결정성이 독립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다른 동기 요인이나 전략 등과 함께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Kim, Kim, & Hong, 2006; J. Y. Park, 2017).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과 함께 영어자기효능감을 영어 성취도를 설명하기 위한 동기 요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증명되었다. 즉, 자기결정성과 영어 성취도의 상관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지만,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다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r = .285, p < .001$ ). 자기결정성이 영어자기효능감과 직접적 상관 관계를 가지면서 영어 성취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이 서로 상관성이 있으며 학업 성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J. Y. Park(2017)의 결과와 일치한다.

###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동영상강의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블렌디드 환경에서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 회귀 분석한 것이 Table 8이다. 다중 공선성(VIF)의 값이 10 이상을 넘지 않기 때문에 회귀 분석은 유의하다.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약 23%(수정된  $R$  제곱 = .23)이다. 회귀모형을 설명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Y(\text{영어 성취도, EA}) = 21.93 + 6.71 \times \text{영어자기효능감(ES)} - 2.38 \times \text{자기결정성(SD)}$$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증결과 영어자기효능감은 영어 성취도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B = .671, p < 0.01$ ). 반면, 자기결정성은 영어 성취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B = -.238$ 이나  $p > 0.05$ ). 이는 상관분석에서 영어자기효능감과 영어 성취도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자기결정성과 영어 성취도의 유의하지 않은 상관 관계를 보여준 것과 일치한다. 자기결정성과 영어 성취도의 관계가 부(-)적인 관계를 가진 것은 J. Y. Park(2017)과 J. Kim(2022b)의 결과와 일치한다.

**TABLE 8**

*The Impact of English Self-Efficacy and Self-Determination on English Achievement (N=158)*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B	SD	Beta	T	p	VIF
English Achievement	(Constant)	21.93	4.86		4.52***	.00	.
	English Self-Efficacy (ES)	6.71	.957	.51	7.02***	.00	1.09
	Self-Determination (SD)	-2.38	1.89	-.09	-1.26	.201	1.09

$F = 24.91 (p < .001), R Squared = .24, Adjusted R-squared = .23$

Note. English self-efficacy-영어자기효능감, self-determination-자기결정성, \* $p < 0.05$ , \*\* $p < 0.01$ , \*\*\* $p < .001$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과 영어성취도와의 관계와 영향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본 연구를 포함한 자기결정성 관련 연구의 일부는 자기결정성이 독립적으로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기 보다는 다른 동기요인, 전략 환경 등과 더불어 학업 성취도를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는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동기요인을 함께 학업 성취도를 설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 성취도와의 상관관계가 낮거나 부(-)적인 관계를 보이거나 Table 8의 회귀분석 결과처럼 자기결정성의  $p$  값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은 자기결정성 관련 연수 수행과 과정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결정성 측정을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가 살펴보아야 한다. 설문 문항이 무동기와 외적 제약 및 자기 통제와 의식적 가치 부여를 통한 외재적 동기 요소에만 국한되어 제작되고,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의 하위 요인을 다룬 것들은 사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제작된 설문 문항을 조사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상관 분석과 회귀분석으로 입증된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의 영어 성취도와의 상관관계는 면담 참여자들의 면담문의 질적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영어자기효능감은 영어 성취도가 낮은 그룹과 높은 그룹이 다른 양상을 보여주었다. 영어 성취도가 낮은 그룹의 면담 참여자 D는 본인의 영어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을 다음과 말하고 있다.

“저 영어 너무 어려워서 자신감부터 없어서 계속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너무 어려워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 공부해도 그 만큼의 성과도 못 나올 것 같고 그냥 영어 자체가 너무 두려우니까 그냥 결과가 무서워서 공부를 전공에 비해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2023.06.30, 참여자 D)

반면 영어 성취도가 높은 면담 참여자 B와 P는 다음과 같이 영어를 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냥 들으면서(성적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으로 수업에 참여했어요.”(2023.07.01, 참여자 B).

“그냥 계속 오르는 그 점수 딱 성적 나왔을 때 높은 점수 나오는 그런 거 생각하면서 하니까 성적이 오른 것 같아요.”(2023.06.30, 참여자 P)

반면, 자기결정성은 면담 참여자들의 영어 성취도와 상관없이 4명 모두에게 내적 동기가 높은 순수한 영어 공부의 즐거움을 느끼기는 것보다는 부여된 목표나 개인적 중요성에 따라서 영어학습을 하는 확인된 조절만 분석되었다. ‘영어공부를 왜 하는가’라는 면담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 “영어 공부하는 이유는 토익 때문이에요. 그래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많으므로”(2023.06.30, 참여자 D)  
 “취업을 위해서. 일단 최종 목표는 취업이니까. 실질적으로도 필요하고 취업에도 다 연계되는 거니까 양쪽 다 도움된다고 생각합니다.”(2023.06.30, 참여자 K)  
 “일단은 토익이 필요해야지. 어느 회사는 지원해 볼 수 있고 안정적인 점수가 있어야지 또 면접에서 그게 자신감의 요소 중에 하나가 된다고 생각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2023.07.01, 참여자 B)  
 “토익, 토익 그냥 지금 저한테 영어는 토익이 전부이긴 한데 네 그런 것 같아요.”(2023.06.30, 참여자 P)

4명의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이라는 학생들의 개별적 목표를 위해서 토익공부(= 영어공부)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토익’은 학생들이 취업이라는 목적을 위한 또 다른 개별적 목적이 되었다.

요약하면, 영어자기효능감과 영어 성취도는 정(+)적인 관계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으며, 자기결정성도 영어 성취도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기결정성의 영어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서, 서로 상관이 있으면서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회귀분석에 있어서 영어자기효능감과 영어 성취도는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자기결정성은 영어 성취도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면담 참여자들의 면담에서도 수준별로 다른 영어자기효능감이 분석되었다. 모든 면담 참여자들에게는 자기결정성의 하위 동기요인 중에 하나인 확인된 조절만 분석되었다. 이는 토익공부가 취업이라는 개별적이고 실질적인 목표가 된 것과 일맥상통하다.

##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온라인수업은 계속해서 필요하며, 교실수업을 진행하면서도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계속해서 같이 활용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전면적 교실수업을 실시했던 인천의 A 전문대학 2023년도 1학기 ‘영문의 이해 초급’을 수강하는 항공운항과 1학년에게 학생의 개별적인 학습 필요에 따라 교실수업 시행 전·후에 연습과 복습을 위해 자발적으로 교실수업과 동일한 내용의 동영상강의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였다. 동영상강의는 LMS에 제공되었으며, 수업의 15주차에 구글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는 총 158명의 응답하였으며, 이 중 성적 상위 2명과 하위 2명의 학생들과 대화를 통해 면담 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비용이 덜 들면서 교실수업의 장점을 극대화한 ‘약한 블렌디드 러닝(weak blended learning)’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약한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이 학생들의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블렌디드 환경에서 학생들은 상당수(48.1%)의 학생들이 교실수업과는 별도로 시험대비, 복습, 연습, 또는 필요한 부분의 이해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의 온라인학습에서는 전체 온라인 강의를 수강해야 했던 상황과 대조적이다. 둘째, 과반수가 넘는 학생들(74%)이 동영상강의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셋째, 학생들은 각자의 영어 실력과 수업 이해 정도와 학습 스타일에 따라서 동영상강의를 활용하였다. 면담 참여자들도 각기 다른 활용 방법과 빈도로 영어 학습에 동영상강의를 활용하였다. 넷째, 영어자기효능감과 영어 성취도는 양의 관련성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자기결정성도 영어 성취도와 양의 관련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자기결정성이 영어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며 영어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영어자기효능감과 영어 성취도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며, 자기결정성은 영어 성취도에 음의 영향을 미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질적 분석을 위한 면담문에서는, 영어자기효능감에 관해서는 면담 참여자의 영어수준 별로 다르게 분석되었다. 자기결정성에 관해서는 모든 면담 참여자에게 하위 동기요인인 확인된 조절만 발견되었다.

본 연구의 교육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코로나 시기의 많은 온라인 관련 연구들이 교실수업과 비교하여 온라인수업의 단점을 부각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온라인 강의가 교실수업과 더불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온라인 강의를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비교적 적은 노력과 비용으로 학생들의 영어학습에 여러가지 모양으로 학습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인 온·오프라인 혼합 영어 수업 모델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교수자에게도 동영상강의 제작과 준비과정은 교실수업을 제대로 완벽하게 준비하게 했던 수업준비 과정이었으며, 교수자 스스로 수업 내용을 일일이 자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과정으로 활용되었다. 셋째, 온라인 강의를 교실수업과 같이 활용하는 것은 계속되는 전염병이나 개인 학사 일정으로 교실수업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학생들의 수업 결손을 보충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제로 활용되었다.

이와 교육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의 제한점을 가진다. 첫째, 법정공휴일의 수업 보충을 위해 온라인수업으로 사용되는 등의 개별적 학습 상황과 온라인수업을 사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는 것이 정확한 정의가 힘든 기술적 문제로 동영상강의를 사용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나누어서 양적 분석을 하지 못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실시되었던 심층면담도 수업이 끝난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의 전화상담으로 시행했기에 좀더 깊은 수준의 질적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지 못했다. 셋째, 회기분석에서 자기결정성의  $p$  값이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인 것인 자기결정성 측정을 위해 사용한 설문문항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무동기와 외적 제약 및 자기 통제와 의식적 가치 부여를 통한 외재적 동기 요소에만 국한되어 있는 설문문항이 사용되고, 상대적으로 강한 자기조절(self-regulation)의 하위 요인을 분석한 설문문항은 사용되지 않았다. 좀더 다양한 각도에서 제작된 측정도구를 사용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보조적으로 활용한 블렌디드 환경에서 영어자기효능감과 자기결정성이 영어 성취도에 미치는 관계와 영향을 양적으로 분석했으며 정의적인 부분도 고려했다는 점에서 그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Prentice-Hall.
- Bersin, Josh. (2004). *The blended learning book-Best practices, proven methodologies and lessons learned*. John Wiley & Sons.
- Chen, Y. (2020).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English performance. *iJET*, 15(8), 223-233.
- Cho, Hyeyoung. (2021). Students' perception of emergency online language education COVID-19 pandemic: A case study.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4(2), 10-33.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Pleenum.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319-338.
- Graham, C. R. (2006). Blended learning systems: Definition, current trends, and future directions. In Bonk, C., & Graham, C. (Eds.), *Handbook of blending learning* (pp.3-21). Pfeiffer.
- Ha, Sung Eun. (2022).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vel of academic self-efficacy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due to the expansion of blended learning in COVID-19*.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Han, Jong-Im, & Kang, Hanna. (2018). The effects of blended-learning pre-task activities on Korean college students' speaking skills.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1(3), 175-205.
- Jo, Eun Moon, & Lee, Jong Yeun. (2010).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trategies of motivation regulation, the motivation types of self-determin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7(3), 405-428.
- Joe, Eu DDeum. (2016). *A study of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fficacy and English academic achievement-Focusing on 3<sup>rd</sup> year middle school students in Jeong-eup*.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 Ju Hee Jin. (2011).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ments*, 11(2), 237-259.
- Jung Byongsam. (2023). Longitudinal effect of self-efficacy on college students' growth of TOEIC score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4(2), 377-399.
- Kim, Ahyoung. (2007). *Self-efficacy theory and field research*. Hakjisa.
- Kim, Ahyoung. (2002). Validation of taxonomy of academic motivation based 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Korea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6(4), 169-187.
- Kim, Ahyoung, & Park, In-young. (2001).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cademic self-efficacy scale.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39(1), 95-123.
- Kim, Bomim. (2016). *A study of the correlation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English self-efficacy with their English ability, learning motivation, and learning anxie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Kim, Chung-Ja. (2013). The relationship among self-efficacy, self-determination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iddle/high school student.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3), 1148-1156.
- Kim, Jooan, Kim, En Joo, & Hong, Sehee. (2006). Effects of self-determination on the academic achievement in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0(1), 243-264.

- Kim, Junghyun. (2021).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class satisfaction and English self-efficacy with online classes on academic performance.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4(4), 189-213.
- Kim, Junghyun. (2022a). L2 motivational self system and English achievement: A case of Korean college students. *Modern English Education*, 23(4), 52-64.
- Kim, Junghyun. (2022b). The effects of self-directed language learning and self-determination on English achievement: The preferred English teaching methods of Korean college students in the era with COVID-19.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25(4), 148-169.
- Kim, Sara. (2018). *A Comparative study on motivation and English achievement among students in alternative school and public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Kim, Seong Ah. (2014). *Factors predicting self-efficacy and English language achievement: With specific focus on female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 Kim, You Jeong. (2017).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by subjects: Focused on English subject.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 40, 11-34.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 Lee, Bo-Kyung. (2021). A study on EFL learners' perception of college general English class type in the COVID-19 non-contact era.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6), 237-250.
- Lee, Jihye. (2011).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on English academic achievement o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 Lee, Mi-Jung.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English-achievement in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ha University.
- Lee, Yong-Wun, Lee, Young-Mi, & Yoon, Su-Jung. (2010). The effect of school-based blended learning program o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and self-directed learning attitude.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Methodology Studies*, 22(4), 195-217.
- Oh, Hee Jeong.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TOEIC achievement. *English Language Teaching*, 24(3), 299-319.
- Oh, Young-Beom, & Lee, Chang-Du. (2012). The effect of class satisfaction and self-efficacy on English class using videoconferencing. *Journal of Digital Policy*, 10(8), 317-326.
- Park, Chul-Min. (2009). *The study on English learner's self-determination and self-regulated lear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Park, Ju Young. (2017). *A study on the effect of English self-efficacy,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course satisfaction on Academic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 Park, Kyoung-sook, & Oh, Insoo. (2016). The effect of self-determination motivation and self-efficacy on student engagement: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glish Subjects Interest.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 Instruction*, 20(4), 295-305.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es*, 55, 66-78.
- Stein, J., & Graham. C. R. (2013). *Essentials for blended learning-A standards-based guide*. Routledge.
- Strauss, A., & Corbin, J. (1994).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Sage.
- Thorne, K. (2003). *Blended learning-how to integrate online and traditional learning*. Kogan Page Ltd.

## Appendix

### 설문문항

#### 블렌디드 수업환경

1. 이번 학기 영문의 이해 초급의 수업 내용과 양은 내가 이해하고 따라가기에 충분했으며 수업을 들음으로 영문법 실력과 토익 독해 실력이 향상되었다.
2. 이번 학기 영문의 이해 초급 수업을 들으면서 본인은 LMS에 탑재한 온라인 동영상강의를 본인의 학습에 활용하였나요?
  - 2-1. 동영상강의를 활용하였다면, 그 무엇이고, 언제, 어느 정도의 시간으로 어떻게 활용하였나요?
  - 2-2. 동영상강의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3. 동영상강의 수업을 보조적으로 활용한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3-1. 동영상강의를 활용한 것이 성적 향상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입니까?